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 '이상무'

임실군, 상수도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마무리… 정수처리 2개 배수지 13개 진단

임실군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상수도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했다.

임실군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급수환경 조성을 위해 상수도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상수도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종합진단을 실시, 완료작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정수처리시설 2개소 및 배수지 13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기관과 합동 및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내부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점검반은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정수처리시설 공정별 시설물의 관리상태 설비 및 배관 등의 부식 여부, 화재대비 소방시설 작동상태 및 기능확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특고압반 정밀안전점검 등이다.

또한 상수도 급수구역별 배수지 및 가압시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로 강풍에 의한 파손 및 호우시 배수 대책, 보안설비 정상적인 가동여부 등 분야별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안전한 수질 및 맛있는 수돗물 품질 유지와 군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취수원에서 부터 급수과정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의거해 이뤄졌다.

수질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상태와 배수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또한 기기의 고장이나 약품주입시설과 보관시설 및 경보설비를 주1회 점검하는 것을 체계화하여 상시 가동가능상태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물 바닥 물고임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민 군수는 "물과 미래를 위한 상수원 수질확보를 위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시 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돗물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상수도 현대화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이 주요 관광지 탐방 취재를 실시했다.

남원의 멋 직접 보고… 쓰고…

남원 블로그 기자단, 주요 관광지 탐방 취재

남원시는 지난 29일 10명으로 구성된 남원 블로그 기자단이 봄 관광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탐방 취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관광지 탐방은 남원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SNS 및 블로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블로그 기자단은 구)서도역, 혼불문학관, 운봉허브밸리, 함파우소리체험관 등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요 명소를 방문했다.

아름다운 남원의 모습을 촬영해 SNS 및 블로그에 포스팅 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먼저,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역사인 구)서도역과 남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풀어낸 대하소설 '혼불'을 기념하는 혼불문학관에서 탐방을 시작해, 운봉허브밸리, 함파우소리체험관 등을 탐방하고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요천 강변에서 탐방에 대한 소감을 전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10명의 블로그기자단은 남원시 블로그(http://blog.naver.com/goodnamwon)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해 시와 시민 간 소통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양일규 홍보전산과장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쌍방향 소통매체인 블로그를 통해 관광명소를 검색 하고 방문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도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숨은 명소가 블로그기자단을 통해 유명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전국 첫 '치매안심선포식'

남원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치매안심 선포식을 가졌다.

남원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치매에서 자유로운 사랑의 고장 남원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편견을 없애 환자와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선포식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인 치매파트너들의 치어리딩 퍼포먼스 특별공연이 펼쳐져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했으며, 시 치매관리사업 소개와 건강강좌가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초청 건강강좌에는 대한노인회 홍보대사인 배우 겸 가수 김성환씨가 강사로 나서 '치매를 예방하는 즐거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조기 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즐거운 노년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와 조호물품을 확대 지원해 치매환자 보호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조기검진 및 다양한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없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 민 임실군수, 핵심사업 신속추진 '진두지휘'

심 민 임실군수가 주요 핵심 및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2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서별 핵심 및 현안사업 30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세세히 보고받았다.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심 군수는 임실치즈-옥정호-성수산-반려동물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의 신속한 구축과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를 책임질 문화체육공간 조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사업은 시기가 정해서 있어 시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였다.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번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국·실과장 책임 하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가축방역 대책기간 종료… 단 한건 의심사례 없어

남원시가 단 한건의 구제역 AI 발생 없이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을 종료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AI 특별 방역에 돌입하여 6개월동안 가축방역에 매진한 결과 단 한건의 의심사례도 없이 청정 남원을 사수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환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자체 소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 및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시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광역살포기 등 6대를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생석회 등 81톤을 공급해 농가 자율방역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매일 아침 관계부처와 시도 행정부지사와의 영상회의 내용을 전 축산농가에 실시간 SNS로 발생상황과 차단방역요령을 알려주고, 농가들의 불편사항이나 방역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열린 소통을 통해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역기간 종료 후에도 국내에 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일부지역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AI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 아 리*

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 읍 중앙도로 지중화사업 공청회

순창군은 지난 28일 순창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순창읍 중앙도로 지중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앙도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경제교통과장의 사업설명과 공청회 참석자 질의와 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는 평일 낮에 개최했음에도 많은 주민들과 소상공인이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현안사업임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관계 부서의 시원한 답변이 이어져, 상품권 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날 참석한 시장 관계자는 "상인들의 경우 상품권의 환전 문제가 중요하다"며 "당일 환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환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은행에서도 즉시 환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현장지도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는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실과 복숭아 등 핵과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에 나섰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핵과류의 씨앗 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며 이듬해 봄에 꽃이 필 무렵 성충이 되어 4월 초.중순에 어린 핵과류의 열매 속에 알을 낳아 5월 중하순 과실 비대기에 과실이 함몰되고 낙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군 관계자는 방제방법으로 어린 과일 속에 성충이 알을 낳는 시기인 4월 초~중순에 목초액, 피마자유 등을 이용한 유기농자재와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등을 사용을 권장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은 성충기간을 제외하고 알, 애벌레, 번데기 기간동안 씨방에서 살기 때문에 방제 적기를 놓칠 경우 방제 효과가 낮다"며 농가들의 신속한 방제를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